



국경없는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SUMMER
2020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최근 코로나19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간급구호 단체로서의 경험과 전염병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대응 및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주요 우선 순위는 각국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지원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가장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며, 필수 의료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코로나19 현장 대응 활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코로나19의 대응 활동과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살펴보고, 물과 식량,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필요에 접근이 어려운 소외된 이들을 조명합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물리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이 가능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코로나19 예방 팁 또한 공유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칙입니다. 또한 모두가 앞다투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전념하는 가운데, 소아 면역 전문 소아과 의사인 신경수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의 특별 기고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면 국경없는의사회는 백신은 물론, 다른 의료 기술 또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특히 및 다른 조치를 이용해 이익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백신, 치료제와 진단 도구에 대한 대중적인 접근을 제한하는지 조명합니다.

현재 의료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장 구호활동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가 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한국사무소의 새로운 현장 인사 담당자가 인터뷰를 통해 구호활동가 예비 지원자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호에는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2019년 연례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례보고서는 2019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국경없는의사회의 사회적 미션에 대한 한국의 대중적 지지가 높아진 매우 생산적인 한 해였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보건 긴급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국경없는의사회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후원자와 구호활동가의 지원으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티에리 코펜스



COVER STORY

2020년 3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펼쳤다.
©Kristof Vadino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0615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애플트리타워 9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www.msf.or.kr

facebook.com/msfkorea

@msfkorea

@msfkorea

youtube.com/msfkorea

@국경없는의사회

blog.naver.com/ms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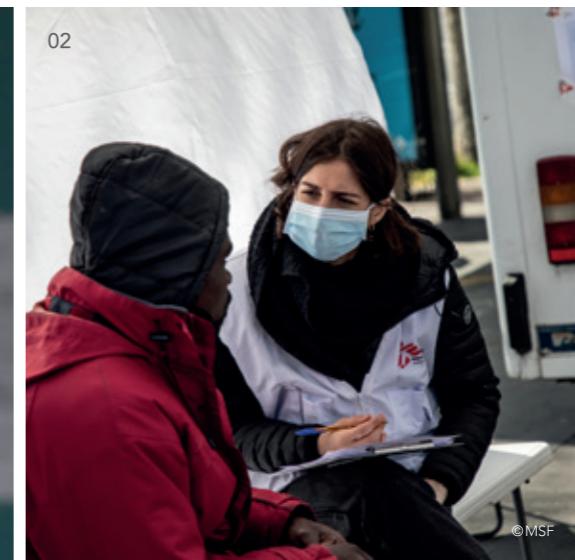
목차

- 04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 08 코로나19가 난민과 이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11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일상의 생활 방역 수칙
- 12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 14 코로나19 치료제, 진단키트, 백신에 특히나 폭리 금지를 촉구합니다
- 16 예방접종 : 질병을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 20 국경없는의사회 난민 수색 구조선 오션바이킹 운항 잠정 중단
- 22 후원자 소식 / 병원 후원 소식
- 23 기업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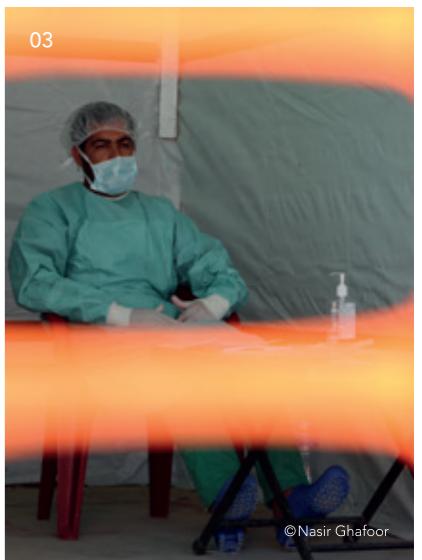
발행처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발행일	2020년 7월
발행인	티에리 코펜스
편집기획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커뮤니케이션국
디자인	(주)헤즈 대표 배영선
	아트디렉터 원상철
	수석디자이너 조하나 / 디자이너 주해슬, 차은의



01



02



03

코로나19 환자 치료 제공

국경없는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유럽과 미국에서 취약 계층과 고위험군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요양 시설의 고령자, 노숙자, 이주민이 포함되며, 특히 이주민은 매우 위태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어 사망률이 비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는 현재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지역으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코로나19로 환자 수가 급증해 과부하된 병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감염 관리 및 예방법에 대한 자문과 교육에서부터 코로나19에서 회복 중인 환자나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위한 병동 설치까지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말리, 파키스탄 등에서 코로나19 전담 의료 시설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케냐, 레바논, 니제르, 필리핀, 세네갈, 시리아, 예멘 등에도 전담 의료 시설을 지원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심각한 형태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치료한다.

콜롬비아, 이라크, 나이지리아와 같이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고 병원의 수용력을 확대하기 위해 병원 및 의료 시설 내부에 전담 병동을 개설했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도 국경없는의사회 야전병원에 코로나19 전담 병동과 격리실을 설치했다.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로힝야 난민들이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현재 활동 규모는 300병상 정도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곳에서 의료진 훈련을 진행하고, 보건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01

이탈리아 :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중부 마르케(Marche) 지역의 한 요양 시설 거주자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응원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마르케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02

프랑스 :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 사를린 벵상(Charline Vincent)이 이동 진료소에서 한 남성을 검사하고 있다. 이동 진료소는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노숙자를 위해 설치되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식별하기 위해 파리 및 교외 지역에서 여러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03

파키스탄 :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 사자드(Sajjad)가 코로나19 검사 진행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로워 디르(Lower Dir) 지역 티머가라(Timerghara) 지역부분 병원에 코로나19 검진소를 설치했다.



감염 예방 및 보호

역량 강화

국경없는의사회는 우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환자와 직원을 보호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개선했다. 의료 시설에서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이동 제한과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가 불가능한 인구를 대상으로 스스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일용직 노동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나 과밀집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가격리나 이동 제한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 증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능한 경우 비누를 보급하고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급수장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재사용이 가능한 천 마스크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암, HIV, 결핵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을 보호하고자 한다.



시리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그리스 등 난민 캠프에서는 손 씻기와 깨끗한 식수 공급이 가능한 급수장을 설치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 마스크 제작에 나섰다. 천 마스크는 현지에서 제작할 수 있으며 의료용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수 의료 서비스 유지

갑자기 엄청난 수의 신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의료 시스템이 이미 취약한 국가는 과부하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빠르게 붕괴하고,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가 흔들리면 홍역, 말라리아, 설사 같은 흔한 질병이지만 아동의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성·생식 보건, 응급 서비스, 산과 및 외과 병동, HIV 및 결핵 치료와 같이 국경없는의사회가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 또한 차질이 생긴다. 이것은 지역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사망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 시설에서 감염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전염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재정비했다. 환자 사이 안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을 재설계하고 입원 병동은 각 병상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니제르에서는 사람들이 말라리아 검사를 받으려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보건 인력이 지역사회를 방문해 검사를 제공한다.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엘살바도르, 나이지리아, 수단, 예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시설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보건 당국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및 통제 방법과 코로나19 환자 식별 및 분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은 개인 보호 장비(PPE)가 시급히 필요하지만, 많은 국가가 마스크나 보호복과 같은 필수 물품과 진단 키트를 비롯한 의료 도구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보호 장비, 코로나19 진단 키트, 산소, 통증 완화 치료를 위한 약품 등 의약 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공급이 더욱 시급하다.

하지만 여러 제약 속에서도 국경없는의사회는 모든 활동 지역에서 기존 활동을 재정비하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 활동을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01
남수단 : 식수·위생 코디네이터 아드리안 마하마(Adrien Mahama)가 주바(Juba)에 위치한 알사바(Al-Sabah) 병원 직원 대상 감염 예방 및 통제 훈련을 진행하여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수단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부를 지원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03
이라크 :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이라크 보건부 소속 의료진에게 올바른 수술용 마스크 착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바그다드에 있는 이븐 알 카테에브(Ibn Al-Khatib)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및 통제와 코로나19 환자 분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02
파키스탄 : 국경없는의사회 보건 증진 담당자는 사람들이 로워 디르(Lower Dir) 지역 티머가라(Timerghara) 지역본부 병원에 출입할 때 서로 최소 1.5m의 거리를 유지하고 세수대에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파키스탄 북부에 위치한 병원 입구에 코로나19 검진소를 설치해 매일 1,000여 명을 검사하고 있다.

04
카메룬 : 한 여성이 국경없는의사회가 카메룬 북서부 바멘다(Bamenda)의 세인트 메리 솔레다드 병원(St. Mary Soledad Hospital)에 설치한 코로나19 사전 검진 텐트 밖에 서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병원에 코로나19 환자 선별과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난민과 이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는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중에는 7천만 명이 넘는 '이동 중인 인구'가 있다. 바로 난민과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IDP)이며,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아주 노동자도 해당된다.

이 중 많은 수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 난민 캠프, 수용 시설 또는 구금 센터에 살고 있다. 대부분 깨끗한 물이나 위생 시설, 의료 혜택 등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며, 많은 경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이 처한 환경에서는 예방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물이나 비누가 부족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불가능하며, 1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비좁은 텐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둘 수 없다. 식수와 식량을 보급 받기 위해 많은 사람이 줄을 서야 하는 것 또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경우 실향민은 체포나 학대의 위험에 직면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혐오가 증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며, 전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야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질병 매개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어떤 곳은 인도적 지원조차 부족하다.

게다가 현재 많은 국가가 코로나19를 난민과 이주민,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단체를 처벌하려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167개가 넘는 국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국경을 폐쇄했으며, 57개국이 망명 신청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안전한 거처를 찾는 사람들은 외면 당하며,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는 나라로 돌려보내진다. 코로나19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명목으로 국경을 폐쇄하지만 많은 국가가 동시에 망명 신청자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간접적으로 접근 자체를 막고 있다.

"난민 캠프에서는 컨테이너 하나에 대여섯 명이 살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떨어져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에 거주하는 난민 프레드릭(가명)

"시리아 난민 수는 백만 명 정도 됩니다. 총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수입니다. 이들은 모두 난민 캠프의 텐트에서 지내고 있고 '집'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 머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티안 레인더스, 국경없는의사회 시리아 북서부 현장 코디네이터

"햇빛이 너무 뜨거웠고, 마실 물이나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셨고, 배 위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매일 음식 한 줌과 물 한 모금만 주어졌어요. 사람들은 구타를 당했고, 뼈와 피부만 남은 상태였어요. 배에 탄 이후 우리는 계속 무릎을 가슴팍까지 올린 상태로 앓아 있어야 했고, 다리가 붓고 마비되어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말레이시아가 구조를 거부한 배에 탑승해 있던 14살 로힝야 난민



©Vincenzo Livieri



02

©Jérôme Tubiana/MSF



03

01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 캠프,

02
리비아 진탄(Zintan) 구금 센터 내 700명이 수용된 창고 입구에 모인 난민들. 몇 달째 결핵 발성이 이어지고 있어 감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기도 한다. 가장 큰 창고는 2019년 6월 비워졌으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구금 센터 내 다른 건물로 흩어졌다.

03
그리스 섬 사모스 난민 캠프의 열악한 환경.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8,000명 이상이 밀집된 채 생활하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곳에서 물과 위생 시설을 제공하고 소규모 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20년 3월, 시리아 서북부의 국내 실랑민 캠프에 담요 및 위생 키트 등 필수품을 보급했다. ©MSF

'이동 중인 인구'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

1. 코로나19가 이주 통제 정책을 시행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이용해 난민,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녕을 보호하는 것과 난민, 망명 신청자, 이주민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인 원칙이 아니다.

2.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이용해 난민,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권리와 제한하는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며 임의적 또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조치 시행 기간이 제한되어야 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법적인 망명 신청 절차를 허용해야 한다.

3. 이동 제한과 대규모 격리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선 안 된다. 격리 및 폐쇄 조치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격리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 및 심리사회적 지원, 식량과 물 등 기타 필수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규모 격리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특히 고밀집되어 있고 비위생적인 난민 캠프를 방지하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한 행위이다.

4. 위험에 처한 난민은 대피시켜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위험에 처한 난민과 이주민 망명 신청자의 대피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 난민 캠프에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자, 호흡기 질환자, 당뇨 및 기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와 아픈 아이들을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보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리비아에서는 국제 사회와 유럽 정부가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취약한 난민, 이주민, 망명 신청자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통제 조치로 인해 긴급히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체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현재 국경 폐쇄가 의료 및 인도적 지원 물자뿐 아니라 의료진과 인도적 단체의 출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 각국 정부는 난민 캠프 또는 구금·수용 시설의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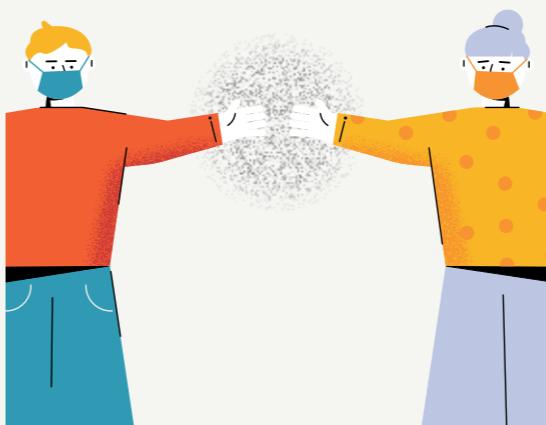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일상의 생활 방역 수칙!

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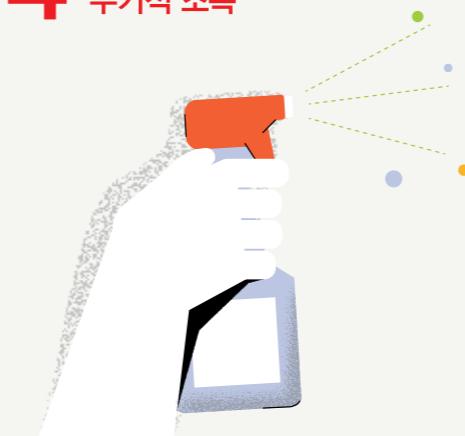
2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4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지난 14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로, 사무소 직원으로 일한 파스콸레 피날디는 최근 구호활동가 채용 및 지원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 개발(Field HR) 매니저’로 한국사무소에 합류했다. “구호활동가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파스콸레를 만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채용과 현장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수많은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은 각각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매 활동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수많은 추억을 안겨줍니다. 한번은 파키스탄의 외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였고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역의 유일한 국제 구호 단체였죠. 그곳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경없는의사회가 일하는 지역 중에는 이런 곳이 많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끊임없이 ‘접근(Access)’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나중에 한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응급 이송 서

국경없는의사회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전에는 이탈리아에서 주로 은행과 금융 분야에서 일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평소 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국경없는의사회에 오게 된 계기도 ‘책’ 때문입니다. 2003년 여름, 인류학 입문서를 읽었는데 정말 흥미로워서 인류학 석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과 보건 사회결정론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내 삶이 금융 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2005년 겨울에는 국경없는의사회 초기 활동가 중 한 명인 로니 브라우먼이 쓴 <보건 유토피아(Utopies Sanitaires)>를 우연히 읽게 됐는데, 의료 접근성 격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멋진 단체의 일원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 채용되었다는 전화를 받던 그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구호활동가로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은 현장 경험과 학문적 채움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7월, 파키스탄으로 첫 활동을 나가 2년 가까이 활동했고, 이후 케냐, 아랍에미리트, 라이베리아, 미얀마 등 여러 나라에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활동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저는 지평을 넓히고자 ‘공중보건’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밟으며 저는 ‘역학’이라는 분야에도 매료되었고, 1년 후 네덜란드로 가 역학 석사 과정도 밟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이후 아이티에서 현장 역학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죠. 아이티에서 ‘성 기반 폭력’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성 · 생식 건강과 권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후 청소년기 생식 건강을 중심으로 한 ‘인권’ 연구로 이어졌죠. 이후 계속해 현장에서 ‘역학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갔고, 의료 데이터와 툴 분야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남수단, 말레이시아, 아이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죠.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전 경험을 살려 구호활동가 채용과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비스를 지원받은 것이죠. “국경없는의사회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케냐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시설을 국가의 보건부에 인도했던 과정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은 민족 간 분쟁이 있어 기초 의료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인 지역이었는데,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을 이어가 보건부에 시설을 인도하는 기념식에서 보건부 관계자가 “다른 단체와 달리 국경없는의사회는 매우 구체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접근’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여러 다른 현지 직원과 함께 일하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어요. 10년 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도 연락을 줘서 정말 고마웠죠.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의 삶을 소개한다면?

현장에서 만난 한 여의사를 소개하고 싶은데, 원래는 미국 뉴욕의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은퇴하고 15년 넘게 국경없는의사회에서 활동해온 78세 의사였어요. 뉴욕에서도 기난하고 소외된 환자를 치료했다고 했는데, 그간 쌓은 전문성으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지역에서도 큰 기여를 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현지 의사 교육에 전념했는데, 이분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국경없는의사회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현장에서 같이 일하다보면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료’가 되죠.

국경없는의사회는 어떤 활동가를 찾고 있나요?

“적합한 때, 적합한 곳으로 적합한 사람을 보내는(Right person at the right time and place)”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사무소의 경우 모든 구호활동가 파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것이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가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단언컨대 ‘가장 기억에 남는 여정’이 될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죠?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취약한 사람들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만났을 때, 부상을 입었던 환자가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현장에서의 활동은 활동가 자신에게도 큰 자산이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해결해나가며 결코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역량을 쌓아갑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적응력과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정과 동기 부여, 국경없는의사회 가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현장에서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진단키트, 백신에 특허나 폭리를 금지를 촉구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는 치료제, 진단키트 및 백신에 대한 특허나 폭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특허를 중지하고 무효화하며, 가격 통제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가격을 인하하고 접근성을 보장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미 캐나다, 칠레, 에콰도르, 독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료 도구 등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급해 특허를 무효화하기 쉽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정부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기 위해 연구 중인 의약품에 대해 특허 강제실시권을 발급했다.

*강제실시권 : 공공의 이익 보호와 특허권 남용 방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정부가 특허를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의 허락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게 된 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제약회사 길리어드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으나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따라 이를 포기했다. 이전에 길리어드는 70여 개국에 출원한 20년 특허에 대해 독점을 연장할 수 있었다.

*희귀의약품 제도 : 수요가 적어 상업성이 떨어지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의 개발 및 유통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해당 제약사에 몇 년간 마케팅 독점권이 주어진다.

다나 길(Dana Gill)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Access Campaign, 필수 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미국 정책 자문위원은 "길리어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상업적 폭리를 취해선 안 되며, 특허와 기타 독점권을 실시하거나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길리어드는 이번 세계 보건 위기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렘데시비르에 대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청구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했다. 렘데시비르 연구 개발에 사용된 세금과 공적 자원을 고려하면 더욱 상업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활동 지역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진단키트와 백신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급해 특허를 중지 및 무효화할 준비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특허를 비롯한 다른 장벽을 없애 충분한 수의 공급자가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이동 진료소에서부터 응급 환자 치료 및 코로나19 치료 센터 운영 까지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걸쳐 협력하고 있다. ©Agnes Varraine-Leca/MSF

마르시오 다 폰세카(Márcio da Fonseca)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전염병 자문위원은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며 필요한 약이 너무 비싸거나 단순히 구할 수 없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며,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독점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저렴한 의약품 공급을 보장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단키트 제조사 세페이드(Cepheid)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은 신속 진단키트(Xpert Xpress SARS-CoV-2)에 대해 개발도상국에서 회당 19.80달러의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중에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최극빈국도

포함된다. 이 진단키트는 기존에 결핵, HIV 등 기타 질병에도 사용되는 진단 기기를 활용해 45분 만에 결과를 낸다.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이 유사한 검사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세페이드의 결핵 진단키트를 연구한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1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키트의 구성품은 제조비, 간접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해 3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5달러에 판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즌 데보르그라베(Stijn Deborggraeve)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진단 자문위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지 알아볼 때가 아니다"고 말하며,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높은 가격과 독점으로 인해 결국 치료제와 진단키트, 백신을 정부에서 배급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연장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다나 길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정책 자문위원은 "제약회사 및 진단키트 제조사들이 '해결책'이 아닌 '문제'가 되기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극심한 세계 보건 위기 가운데서도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우리는 각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치료제, 진단키트, 백신을 개발하는 데 정부의 힘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



예방접종 : 질병을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질병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잊기 쉽다. 하지만 최근처럼 코로나19로 전염병의 위협이 가까이 있을 때, 전 세계는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백신을 간절히 기다린다.

예방접종은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흉역의 경우가 그렇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30만 명이 흉역에 감염되고 1년 만에 6,0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국경없는의사회는 2018년 한 해에만 흉역 발생에 대응해 140만 명 이상에게 흉역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감염 통제에 기여할 수 있었다. 현재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확산되는 동안 백신이 개발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면역이 생겨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확산시킬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백신은 또한 질병을 완전히 근절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천연두 퇴치’를 선언했는데, 마지막 자연 감염 사례가 보고된 지 3년 후였다. 천연두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천연두는 지금 까지 성공적으로 근절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인간 질병이다. 덕분에 미래 세대는 천연두에 감염될 위험이 없어 더 이상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많은 질병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고, 몇몇 질병은 천연두처럼 근절하기도 했으나,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런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환자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다. 흉역, 소아마비, 콜레라, 폐렴구균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며, 희생자는 대부분 아이들이다. 이미 더 이상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제조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에게 사라진 디프테리아조차 예멘과 같은 나라도에서는 다시 등장했는데, 바로 전쟁으로 인해 정기적 예방접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분쟁으로 인한 공중보건 체계 붕괴는 전염병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정기적인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때 이전에 근절되었던 질병이 다시 나타나고, 이때는 이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시기인 경우가 많다.

정기적 예방접종에 장벽이 되는 것은 전쟁뿐만이 아니다. 교통 인프라와 전기 공급이 부족하면 거리가 먼 지역에서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백신은 주로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높은 가격’이다. 폐렴은 대표적인 아동 사망 원인 질병이지만 폐렴구균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다. 하

지만 이 백신을 필요로 하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접근성이 제한된다. 2016년,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필수한 사람들에게 의약품이 제공되지 못하게 하는 재정적 장벽과 맞서 싸우는 국경없는의사회의 필수 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은 백신을 생산하는 두 제약회사에게 개발도상국과 인도주의 단체를 위해 아동 1인당 9달러로 가격을 낮춰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는 4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제3의 경쟁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야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보였다. 이것은 왜 백신을 ‘비즈니스 게임’이라 하는지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천 명의 생명으로 측정된다. 백신의 가격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생명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다.

세계는 지금 모두를 위협하는 전염병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받고 있기도 하다. 만약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윤을 잃지 않으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의료진이 목숨을 위협받아야 하는가?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미 우리 각자의 인생과 세계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지만, 적절한 가격의 백신은 보다 적은 손실로 이 전염병에 결말을 맺을 수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기탕가(Katanga)에서 진행된 흉역 예방접종 캠페인을 통해 한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흉역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치명적으로 나타나며, 흉역에 걸린 아동 중 77% 이상이 1~5살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Juan Carlos Tomasi/MSF



남수단 이다(Yida) 난민 캠프에서 폐렴구균 백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Yann Libessart/MSF

레바논의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가 불활성폴리오비아리스백신(PV)을 주사기에 채우고 있다. ©Mario Fawaz/MSF



신경수 활동가가 디프테리아 의심되는 환자의 인후를 검진하고 있다.



© Kyung Sue Shin/MSF

[특별기고]

사라진 감염병이 다시 나타나는 이유

신경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소아과 전문의)

우리는 모두 외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 병원체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병원체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바로 ‘면역 작용’이다.

출생 후 영유아기에는 모체로부터 태반을 통해 받은 항체가 면역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1세경이면 이 항체들의 대부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병원체와 싸울 수 있는 항체를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소아의 면역 작용은 성인에 비하여 아직 미숙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병원체와 싸울 수 있을 정도로 항체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면역(*Innate immunity*) 과정이 아닌 획득 면역(*Acquired immunity*) 과정을 통해 방어 체계를 얻게 된다. 획득 면역의 대표적인 예가 예방접종이고, 예방접종을 통해 병원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다. 획득 면역은 선천 면역과 달리 특정 병원체에만 반응하여 면역 작용을 하는 특성이 있어서 영유아기에 치명적인 감염병의 병원체에 대한 면역 작용을 가지려면 여러 종류의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이런 예방접종을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감염병이 흔하게 발생하거나 감염병에 걸렸을 때 심한 후유증 및 장애를 남길 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가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하고 국민들에게 무상이나 저렴

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필수 예방접종을 선별해 권고하고 있다.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감염병은 결핵, 흉역, 소아마비, 풍진,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B형 간염, 콜레라, 수두, 장티푸스, 폐렴구균폐렴 등이다.

아직 많은 저개발국가에서는 소아에게 필수 예방접종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아이들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흉역 등을 앓고 있는 것을 보았고, 해마다 이런 질병들이 유행한다고 전해 들었다. 디프테리아의 경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라진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어 치료 항생제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많은 비정부기구에서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간단한 예방접종만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감염병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유행하고, 그로 인해 많은 소아가 목숨을 잃는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는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 감염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

국경없는의사회 난민 수색 구조선 오션바이킹 운항 잠정 중단

국경없는의사회는 2016년부터 SOS 메디테라네와 협력해 두 개의 수색 구조 선박 아쿠아리우스와 오션바이킹으로 지중해에서 난민 3만여 명을 구조하고 지원했다. 현재까지도 지중해는 난민 수색 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계속해서 구호 단체의 활동을 좌절시키고 있고,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난민은 분쟁과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정부가 포기한 수색 구조의 공백을 메우려는 이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중해 수색 구조 활동은 더욱 장벽이 높아졌다. 국경없는의사회와 협력기관 SOS 메디테라네는 이에 따라 공동으로 운항하던 난민 수색 구조선 오션바이킹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는 해상 수색 구조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SOS 메디테라네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 각국으로부터 안전한 하선 장소 제공을 보다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경우 하선 장소에 대한 보장이 없더라도 인도주의적 의무에 대해 즉각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악사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리비아를 탈출하는 상황에 더 이상 운항을 대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임무에 대한 기준의 장벽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보면 국경없는의사회는 SOS 메디테라네와의 협력을 종결하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호 단체의 수색 구조 역량을 감소시키고 남은 소수의 활동에도 제약을 가한 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들이 악화시킨 지중해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유럽연합(EU)의 수색 구조 활동을 재개하고, 난민을 리비아로 강제 송환하기 위해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 인명 피해와 고통을 줄여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유럽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주 통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구호 단체의 지중해 난민 수색 구조 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착, 이주, 송환 메커니즘이 중단되면서 최근 1년 동안 분쟁에 휘말린 리비아를 탈출하고자 하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대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현재 최소 65만 명의 난민과 이주민이 리비아에서 밭이 뚫여 있으며, 15만 명의 리비아인 또한 실향했다. 지난 한 주 동안 700명 이상이 위험한 나루보트나 고무보트를 타고 피신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처한 인도적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가 공동 운항한 난민 수색 구조선 오션바이킹.
©Fabian Mondl/SOS MEDITERRANEE

“독일이 구호 단체의 수색 구조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고 이탈리아와 몰타가 생존자가 하선할 수 있는 항구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은 차별적이고 불균형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은 ‘공공보건’을 명목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금지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조치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각국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감염 통제 조치’를 이용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유럽 국경에서 사망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앤마리 루프(Annemarie Loof),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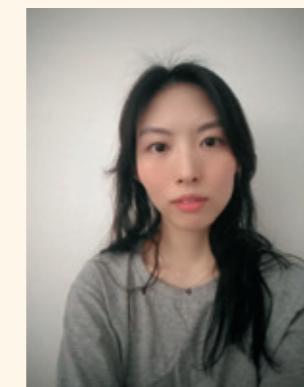
후원자 소식

“안녕하세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5년차 간호사 김수련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웃음과 맞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제가 추구하는 웃음을 보여주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활동하고 싶은 생각에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간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도, 영어 회화 실력을 갈고 닦아 대형병원에 취업한 것도, 중환자실에 배정된 것도, 많은 날 울며 퇴근하면서도 5년차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국경없는의사회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제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후 제 모든 선택의 기로에 국경없는의사회가 있었고,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월 한 달간 자원해 대구로 가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평상시에도 늘 심각한 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아주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에서 의료 지원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원한 목적은 수익이 아니었지만, 병원에서는 공가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한 달분의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당장 생계의 위협은 없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 이 급여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할 때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 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국가들은 외부의 지원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기에, 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 지원 활동을 하며 받게 된 급여를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원하고자 기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과로와 격무에 시달리며 근무하시는 의료진이 많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보고 함께 일하며 경험한 이후, 우리의 일상이 이분들의 땀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매일의 삶에 심리적 부채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의료진의 안전이, 환자의 안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진을, 세계의 의료진을, 그 뒤에서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를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수련 후원자님



병원 후원 소식

“국경없는의사회 슬로건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간다’ 이 한마디는 저그리고 단순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실을 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기적인 세상에 선한 의지와 행동으로 도움이 절실했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체, 그게 국경없는의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나 뉴스레터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소식을 듣고 작은 기부를 실천해 현지의 구호활동가들에게 힘을 보태며 잠시나마 이기적인 제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기부가 끊임없이 모이면 그 뜻이 지구촌 멀리까지 전달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구호활동가들이 이를 모를 고귀한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삼성내과의원 박만제 후원자님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 프로그램은

국경없는의사회가 보다 많은 분쟁 지역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안정적인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병원 명의로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09-508856
(예금주 :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 정기후원 30만원 이상 또는 일시후원 300만원 이상 후원해주시는 병원에는 현판과 배지를 드립니다.

후원 문의

전화 : 02-3703-3554
이메일 : hospital@seoul.msf.org

기업 후원 | 후원기업 소식 및 기업 후원 안내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료 구호 활동을 위해 95% 이상의 재원을 민간 기부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으로 참여해주신 후원기업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후원기업 소식

KBS 교향악단, 국경없는의사회를 위한 특별연주회 기부콘서트 “현정” 개최

KBS 교향악단은 6월 8일 국경없는의사회 콘서트를 기획하였으며 객석 간 거리두기로 오픈한 1,000여석의 좌석은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위기가 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경 너머의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공감해주시고 감동적인 음악을 들려주신 KBS교향악단 단원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공연에 찾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국경없는의사회 코로나19 긴급구호 기업 후원 안내



전염병 대응은 국경없는의사회의 주요 활동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주의 구호 단체로서 의료 체계 붕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취약한 환자를 위해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의료 위기에 처한 미국 및 유럽 국가와 중동·아시아, 아프리카 등 취약 지역에서 위기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구호 후원금 모집 개요

모집 기간

2020년 3월 27일~2020년 12월 31일

후원금 사용 기간

2020년~2021년

사용 목적

코로나19 위기 대응 직접 지원 및 국경없는의사회가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 프로젝트 및 활동 지원

국경없는의사회의 긴급 의료 구호 활동

후원 및 파트너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기업 후원 및 파트너십 문의

전화 : 02-3703-3573
이메일 : corporate@seoul.msf.org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전쟁이 아닌



치료가 필요합니다